

“우리 해양영토와 섬의 가치를 앞장서 알릴게요”

2024 전남해양고교바다환경교육

‘해양영토주권과 섬’ 주제 강연 신안해양과학고교 1학년 대상 해양영토 중요성 ‘눈높이’ 교육 “자부심 갖고 적극적인 탐구를”

“이번 바다 환경 계기 교육을 통해 우리 신안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곳인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신안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에 대해 앞장서 알릴게요”

4일 오전 신안 압해면 신안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는 오강호 전남대학교 무인도서연구센터장이 해양영토의 의미와 섬의 가치에 대해 해당 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펼쳤다.

‘해양영토주권과 우리나라의 섬’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은 전남도와 전남일보가 주최하고 (사)전일엔컬스가 주관한 ‘2024 전남 해양 고교 바다 환경 계기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바다가 갖는 경제·생태·문화·역사적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보호·보전하기 위한 실천 방안 등에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3년째 진행되고 있다.

이번 강연은 해양영토의 중요성과 섬의 다각적 가치를 어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강호 센터장은 국토와 바다를 지키기 위해 동해의 ‘호국룡’이 됐던 신라 문무왕의 이야기와 ‘해상왕’ 장보고, 이순신 장군 등 역사적 인물과 바다의 중요성을 연결하며, 학생들이 해양영토의 가치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오 센터장은 “문무왕뿐 아니라 장보고,

이순신 장군 등 우리 역사 속 인물들은 모두 바다를 통해 국토를 지켜냈고, 바다는 나라의 번영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한반도는 3면이 바다와 맞닿는 만큼 바다의 중요성이 매우 높지만, 우리는 종종 이러한 사실을 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센터장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의 우리 영토를 규정한 헌법 3조를 언급하기도 하면서, 학생들에게 해양영토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기시켰다.

그는 “지난 1982년 ‘해양법에 관한 유엔(UN) 협약’이 채택되면서 배타적 경제 수역(연안을 잇는 영해 설정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이 설정됐다. 1996년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대부분 국가가 협약에 가입하게 된 이후, 우리나라가 가진 섬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섬이 가장 많고, 해안선과 바다가 가장 넓은 전남의 지정학적 가치도 높아져 국가적으로도 지역에 대대적인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센터장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을 넘어서 다양한 자원을 포함한 해양영토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해양영토는 광물자원, 에너지 자원, 수산자원, 공간자원 등 풍부한 자원을 품고 있어 국가 경제와 안보에도 필수적인 요소”라며 “세계 굴지의 강대국이 모여 있는 현 동북아시아 정세에서 우리의 해양영토를 제대로 알고 지키려는 국민들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강호 센터장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신안은 넓은 바다와 수많은 섬을 품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중요도가 때



4일 신안 압해면 신안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 전남도·전남일보가 주최하고 (사)전일엔컬스가 주관한 ‘2024 전남 해양 고교 바다 환경 계기 교육’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준명 기자**



오강호 전남대학교 무인도서연구센터장이 4일 신안해양과학고 학생들을 상대로 해양영토의 의미와 섬의 가치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

우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해양영토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탐구하려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귀를 기울이며 강연을 듣던 학생들은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마다 손을 들고 질

문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교육에 임했다. 이들은 강연을 통해 해양영토와 신안 지역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윤현수 군은 “원래 국제 관계와 영토분쟁 등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시간이 가는줄 모르고 강연을 들었다”며 “강

연을 통해 우리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새삼 깨닫게 됐고, 신안군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허담 군도 “해양 관련 진로를 꿈꿔왔고, 관련 분야에 오랜 관심을 가져와 해양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됐다. 다만 해양영토 등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이번 강연을 통해 그동안 갖고 있던 많은 궁금증이 해소됐다”며 “해양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만큼 주위에 해양영토와 섬의 가치를 알리고자 앞서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성욱 신안해양과학고 교장은 “매년 우리 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해양 주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과 더불어, 각종 바다 관련 활동에도 힘쓰고 있는 전남도와 전남일보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이런 교육들이 향후 해양 관련분야에 진출할 우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해양 특성화고로써 관련 교육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윤준명 기자

전남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 행정력 총동원

농가 방역수칙 점검·생활화 지도 고위험지역 내년 2월까지 사육 제한

전남도는 영암에 이어 강진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속 조기사육을 위한 신속한 검사 및 고위험지역 12개 시군 오리농가에 대해 사육제한을 시행하는 등 확산 차단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강진 발생농장은 육용 오리 18일령 2만2000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지난 2일 농장주가 폐사 증가로 신고를 진행했다. 이에 3일 농립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최종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2일 의심축 신고 접수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 해당 농장에 대해 출입통제 및 소독 등 방역조치를 취하고 도 현장지원관을 파견해 주변 환경조사와 발생원인을 분석했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2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단계에서부터 발생농장 육용오리 모두를 선제적으로 예방적 살처분하고, 발생농장 반경 10km 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이동제한 및 소독을 실시했다.

또한 전국 가금(닭·오리)농장 및 관련 시설에 대해 5일 오후 1시까지 36시간 일

시 이동중지 상태에서 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강진군 방역지역에 소독차량 8대를 동원해 매일 집중 소독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속 초기 색출을 위해 방역지역 내 14호, 역학 30개소, 도내 다슬계열 농가 98호를 신속히 검사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농축산식품국장 주재로 22개 시군과 긴급 방역점검 영상회의를 개최해 차단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가금농가 기반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해 농가 스스로 차단방역수칙을 생활화하도록 지도하고,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도록 당부했다. 발생계열사인 다슬계열 도축장(장흥 소재 다슬·나주 소재 미스터덕)과 가금운반차량에 대해서는 방역대 해제시까지 매주 환경검사를 할 계획이다.

또한 오리 농장 간 사육 밀집도 완화 및 전파 차단을 위해 고위험지역 12개 시군의 오리농가 117호에 대해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사육제한을 실시해 위험요인 감소에도 나선다. 가금과 소를 함께 사육한 농장은 농장 내 벗길 반입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반입 시 철저한 소독 후 반입도 록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다슬 등 도내 5개 오리계열사와 매주 점검회의를 통해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계열농가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광주 복구, 복지부 자활분야 평가서 ‘우수지자체’

광주 지자체 중 유일 수상

광주 복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 자활 분야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지자체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지역 자활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는 △자활 근로 사업 △자산 형성 지원사업 △자활기금 활성화 △사업 운영 기반 등 총 4개 부분을 보건복지부 평가위원회가 심사해 총 14개 지자체가 유공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전남언론인회, 옛 전남도청 ‘보도검열관실’ 복원 요구

광주·전남언론인회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옛 전남도청에 위치했던 ‘보도검열관실’ 복원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광주·전남언론인회 보도검열관실복원추진위원회는 4일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에게 보도검열관실 복원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추진위는 보도검열관실 복원의 필요성을 설명한 건의문과 1980년 당시 보도검열관실에서 검열받은 신문·방송기자들의 증언이 담긴 진술서, 검열로 삭제된 신문

복구는 ‘지역 맞춤형 자활 사업 추진’, ‘자활생산물 판매 활성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한 자활 근로 활성화’, ‘자산 형성 지원사업 활성화’, ‘자활기금 효율적 운영’, ‘민관협력 네트워크 조성’ 등을 호명했으며 평가 부문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지난해 자활근로사업단을 63개소로 확대한 사례와 자활기업 공공기관 입점 지원, 자원재활용 사업·통합돌봄 사업 등을 활용한 ‘지역 특화 자활 사업’은 저소득층 근로의욕 증진과 자립 지원에 기

여한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이에 복구는 광주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지자체에 이름을 올렸고,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문인 복구정장은 “이번 우수지자체 선정은 자활을 위해 노력한 자활 근로자들과 관계기관 종사자들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취약계층 자립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을 전달했다.

보도검열관실은 1980년 5·18 당시 옛 전남도청 별관 2층에 있었다.

추진위는 반민주적 공권력의 현장인 보도검열관실을 복원해 민주주의를 체감하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복원사업에는 보도검열관실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었는데, 지난 9월 첫 콘텐트설명회때 광주·전남언론인회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복원 요구가 현실화했다.

보도검열관실은 1981년 1월24일 전두환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계엄사령부 전남·북 계엄본소 보도검열단’이라는 이름으로 전남도청에 설치돼 신문·방송·잡지 등 모든 매체 기사들을 검열했다.

보도검열관들은 국가안보 부분을 검열한다면서 관련 없는 시위 기사의 축소·삭제를 지시, 여론을 왜곡하게 만들었다.

광주·전남언론인회 추진위원회는 “복원이 결정되면 전국의 언론기관으로부터 검열 자료를 수집하고 게시해 보도검열의 폐해를 낱알이 국민에게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